

禪 바로알기 '금강경 강좌' 인기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0>



칭명과 염불선

요즘에는 염불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행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심지어는 나만존자, 화엄성종, 산왕대신을 부르는 것도 염불에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불교의 포용력이 아니라 염불의 근본 뜻을 모른 채 세속적 욕망에 부합하여 불교의 근본과 나아갈 방향을 흐리게 하는 저급한 변형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자와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더해 기복불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명호가 아니라 부르는 뜻에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부르라' 하고 말했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심념(心念)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때문에 생각 생각에 가운데 80억겁 생사의 죄를 소멸하는 중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뇌가 깊고 죄업이 무겁기 때문에 정토의 경계나 부처님의 상호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증이라도 참회와 믿음의 뜻을 실어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면 50억겁,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명은 믿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칭명은 믿음 성취하는 방법 믿음 성취해야 염불선 가능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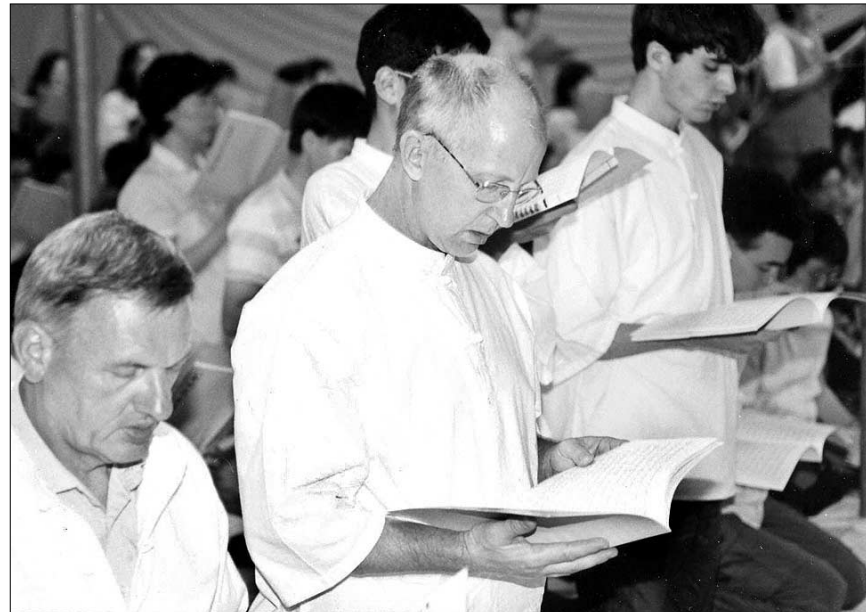
원효는 이 점에 대하여 칭명과 염불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은 모두 '자비광명에 의지함'이요, 믿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안심법(安心法)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하여 부처의 경계를 생각하는, 즉 타력에 힘입어 '스스로 닦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입니다.

그 믿음은 삶에서 야기되는 특정한 고통 혹은 욕망의 해결이 아니라, 생사해탈이라는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이 변화를 성취하여 얻은 성소착지에 대한 믿음이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삶이 괴롭지만 그것은 생사윤회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수행의 목적도 생사해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명염불은 명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만 가지고 부르면 되지 명호를 의심하거나, 소리를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명은 육근 가운데 둘 이상을 동시에 작용할 수 없는 범부들 위해 열여섯 가지 대자비법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명호를 부르고 믿음이 성취되어야 염불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칭명으로 성취하는 '믿음의 극치'가 염불삼매입니다.

<양산 정도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대표적인 <금강경> 공부모임인 금강경독송회 통합법회에서 독경중인 외국인 불자들.

"방아를 다 찢었느냐" "다 찢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키질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늦게 오조홍인 대사는 혜능 행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아무도 모르게 <금강경>을 강의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은 이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날 밤 훗날 대사는 혜능을 선종의 제6조로 정하고 전법의 징표로 가사와 바루를 물려준다. 육조혜능 스님과 <금강경>과의 기연이다.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범어로 한다"는 조계종헌의 규정에서 보듯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울주부터 불어닥친 간화선 수행법을 타고 최근 <금강경>을 통해 선(禪)을 공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선교쌍수(禪教雙修)의 바람직한 실태로 자리잡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02-765-9602) 원장 지관 스님이 9월 24일부터 2년여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금강경 오가해(五家解)>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보문사와 공생선원도 '금강경 선해(禪解)' 강좌를 잇달아 연다. 보문사(02-823-7443)에서는 9월 14-20일 오전 11시 직지사 강주를 10년동안 역임하고 봉암사 해인사 동화사 백담사를 거쳐 백담암선원에서 정진중인 대진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한다. 공생선원(02-900-2448)에서는 선원장 무각 스님이 직접 9월 7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에 '선으로 풀 <금강경> 강좌'를 연다. 지난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불국사 문화회관(054-746-2211)에서

5개월동안 열리고 있는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의 <금강경> 대강좌'도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강경>을 하루 7독송 하고 있는 금강경 독송회(02-742-0172) 등 수행단체의 법회와 고양 흥덕사(02-381-7970) 등 각 사찰의 교양대학 강좌를 포함하면 '금강경 강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버리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금강경>이 선 수행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경문에 나타난 핵심 수행법에 대해 알아본다.

선종의 소의경전이 된 까닭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금강경>의 소의경전으로 택한 것은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 말 것을 강조한 정신" 때문이다. 또 인욕·보시·바라밀 등을 강조한 <금강경> 실천행 역시 소의경전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에 포함된다. 육조혜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깨친 후 중시한 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무념행(無念行)의 실천

그렇다면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설을 듣고 견성하여 체득한 '반야삼매(般若三昧)'란 무엇일까. 혜능 스님에 따르면, 반야삼매란 자재해탈(自在解脫) 또는 무념행(無念行)이라고도 한다. 만법을 대하되 그 만법을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유지하며 육근(六根)을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반야삼매는 만법 속에서 만법을 걸리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유지하는 무념행이자 자재해탈이다"고 말했다.

금강경 - 선객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

■무상·무주·묘유의 실천

혜능 스님은 <금강경해의>의 머리말에서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無相), 무주(無住), 묘유(妙有)에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으며, 무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작용을 삼는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래 이 경전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게 하고 성품을 보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무상, 무주, 묘유 중에서 더욱 근본적인 것은 무상이라 할 수 있다. 무주는 상에 머물지 않음을 말하고, 묘유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무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등 네가지 개념을 떠남으로써 모든 아집을 깨뜨리고 참된 보시바라밀의 묘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기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소박하게는 대립, 분별, 집착을 버린 참 마음을 가집으로써 나와 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보시를 행할 것을 말한다. 이 '머무는 바 없는 행'에 대해 조주 스님은 '부처님이 계신 곳은 머물지 말고 금히 지나가라'했고, 임제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말까지 했다. 대주 스님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佛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선야, 유무, 내외, 공간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 '마땅히 상이 없는 마음(無相心)으로 보시한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구체적인 보시수행으로 꼽힌다. 밀양선원장 고복 스님은 무주상보시를 '주체로서의 마음도 없고 보시하는 객체로서의 물건도 보지 않으며, 보시를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음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철저한 공사상에 입각,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었을 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며, 반야지혜를 얻어 대가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머무름이 없는 보시'는 반야의 지혜로 일체법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데 있다.

■스스로의 마음 항복받기

<금강경>에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항복 받는다(降伏其心)' 문제를 주된 테마로 다루고 있다. 밝고 맑은 본성에 묻든 잘못된 판단을 자기 부정으로 극복하는 수행이다. 보살은 모든

것을 (인욕한다는 생각도 없이) 인욕으로 참으며, 모든 사물에 탐욕심과 분별심을 내지 않으므로 참된 보시행을 할 수 있다. 금강경독송회 김재용 지도법사는 이에 대해 '수행시에는 항상 지성심으로 몸으로는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입으로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찬탄하며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되새김을 연습함이니, 이것이 닦는 사람의 항복기심(降伏其心)이다.'고 말한다.

■'늘 지금 여기'에 살기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三世心) 불가득'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가 돌이 아닌 깨달음에 '불가득'이라고 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즉 절대적 현재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운문 스님의 '하루 하루가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는 말은 영원이 현재에 응축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선종에서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심은 마음이 텅 비어버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곧 일심(一心)이다.

■금강경 공관법

"모든 있는 바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어래를 보리라." 우마선원 이재철 원장은 금강경 사구계를 중심으로 공관법(空觀法)을 닦을 것을 권한다. '분별 망상에 의해 나타난 일체의 법은 일시적인 공이요, 환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아침 이슬이요 번갯불이다. 실체가 없는 몸과 마음, 허깨비 같은 우주의 모습, 이 이치를 보고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자각하라'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시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功치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치치법 전수를 받는다!
 소주전수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

2005 CALENDAR | 불기 2549년 단기 4338년 乙酉年

山寺
 사진·윤명숙
 대 30.5cm x 30.5cm
 소 30.5cm x 22cm

수미산
 사진·김규현

해마다 좋은 달력을 제작해 불자님들께 365일 기쁨을 드려왔던 저희 불광문화사업부에서는 2005년도 달력 '산사'와 '수미산'을 정성 다해 제작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찰, 단체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대상: 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문처: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 (02) 420-3200
 팩시밀리: (02) 420-3400
 http://www.bulkwang.org
 E-mail webmaster@bulkwang.org
 매수 13매 (표지포함)
 제본! 특수고급제본

주문부수 100부 이상 주문시 사찰명이나 단체명, 법회 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인쇄해드립니다.